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3호 [무게 제25682호] 주제 106(2017)년 6월 22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온 나라에 세차게 라번지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 선 전형단위들이 배출되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승리의 포성이 다발적, 현저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 초점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적합한 시급하며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또 하나의 승리의 대회를, 영광의 대회를 장식될 그날을 마음속에 안고 쫓겨가게 내달려 온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과학, 교육 등 문화분야의 각 전선에서 전형단위들이 배출되었다.

위대한 만리마시대를 빛내는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어나고 만리마시대의 선구자작업반, 나아가 선구자공장, 기업소의 영예를 넘겨주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열풍, 집단적경쟁열풍이 나날이 세차게 타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약동하는 젊음으로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집중노력하며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꾼들의 땀과 열정을 총동원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 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온 나라의 전민총돌격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령명인 평양적 재개발사 오석산화강석광산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집중노력이 창조하기 위한 수령의 유혹판권전, 당정책용위전이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명하시면서 높이 모신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형단위와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모든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뼈에 새기고 두배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최후승리를 위한 사투리를 내어놓을 결심과 함께 전선에서 선형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불리는 애국정신을 단결적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려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5개년전략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린 평양적 재개발사 오석산화강석광산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혹과 당정책을 결사판권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린 평양적 재개발사 오석산화강석광산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20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강양도 남포시당위원회 위원장,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적 재개발사 오석산화강석광산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오석산화강석광산의 로동계급이 뜻깊은 6월 19일을 맞으며 5년 인민경제계획을 20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178% 넘쳐 수행하는 혁명적 위훈을 창조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수령의 유혹을 관철하는 길만이 혁명적위훈의 미래를 위한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두터운 판권을 심장에 쏘아박은 장안의 로동계급이 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공격적으로 지난해 70일경계획과 200일전투기간 전민적전투투쟁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회강석체취분야에서 일대 혁명으로 되는 자형혁신적발전기에 의한 현대적인 체취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원석의 집과 실수율을 최대로 높여 생산성을 60% 이상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축하문을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광산의 로동계급이 애국주의반동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를 짓부셔며 혁명적 투쟁을 벌여 오석 산맥에서 광산의 생산을 보장하여 태양의 실지지를 최후승리의 령명을 상징하는 인민의 라상기리도 전면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대렬기의 성능을 개선하며 가공설비들의 고속화, 정밀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수심전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능률 높은 설비

를 자체로 제작 도입한 데 대하여 축하문을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광산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에 준하는 공적을 이룩하고 대중적 열의를 발휘하여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 결정판권을 위해 투쟁에서 빛나는 폐승을 얻어내고 전선의 대연기를 펼치는 데 크게 공헌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광산지대인 장태룡, 지장장 김상근, 최급명위원장 등에게 축하문을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을 받아들인 코나나 강적과 결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나라의 만아름, 추제혁명의 핵심부대에게 오석 산맥에서의 전열에서 더욱 힘차게 내달릴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령히 높이 모시며 수령의 유혹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

어지고 결사의 결심으로 관철해 나갔다고 언급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앞당겨 집행하고 정신, 기백으로 증진투쟁, 창조투쟁, 독자투쟁을 힘차게 벌이며 석재공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석재공업의 다양화, 다변화, 다종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일러와 광산지구를 일러와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건설으로 꾸미며 군중분위기를 높이고 대중적 열정을 활발히 발휘해 나갔다고 말하였다.

로동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터에 더욱 굳게 붙여 당 제7차대회 사회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명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있는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전투력을 넘김없이 펼쳐나갔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는 수송발전소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만리마속도 전열을 내달리며 오석 산맥에서 석재공업을 현대화하고 석재공업을 다양화, 다변화, 다종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일러와 광산지구를 일러와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건설으로 꾸미며 군중분위기를 높이고 대중적 열정을 활발히 발휘해 나갔다고 말하였다.

로동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터에 더욱 굳게 붙여 당 제7차대회 사회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명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있는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전투력을 넘김없이 펼쳐나갔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만리마속도 전열을 내달리며 오석 산맥에서 석재공업을 현대화하고 석재공업을 다양화, 다변화, 다종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일러와 광산지구를 일러와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건설으로 꾸미며 군중분위기를 높이고 대중적 열정을 활발히 발휘해 나갔다고 말하였다.

로동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터에 더욱 굳게 붙여 당 제7차대회 사회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명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있는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전투력을 넘김없이 펼쳐나갔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만리마속도 전열을 내달리며 오석 산맥에서 석재공업을 현대화하고 석재공업을 다양화, 다변화, 다종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일러와 광산지구를 일러와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건설으로 꾸미며 군중분위기를 높이고 대중적 열정을 활발히 발휘해 나갔다고 말하였다.

로동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터에 더욱 굳게 붙여 당 제7차대회 사회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명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있는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전투력을 넘김없이 펼쳐나갔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만리마속도 전열을 내달리며 오석 산맥에서 석재공업을 현대화하고 석재공업을 다양화, 다변화, 다종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일러와 광산지구를 일러와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건설으로 꾸미며 군중분위기를 높이고 대중적 열정을 활발히 발휘해 나갔다고 말하였다.

로동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터에 더욱 굳게 붙여 당 제7차대회 사회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명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있는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전투력을 넘김없이 펼쳐나갔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열의와 노력이 넘쳐나고 있다. -세명군 삼지정농장에서- 본사기자 김홍준 찍음

년간 소금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광명성제염소에서

처음으로 일대적 소금생산기지의 광명성제염소를 비롯하여 세시전 전유역에서 높이 달리고 있는 광명성제염소의 생산계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7일전투 기간 소금생산계획을 100.4%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넓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두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여이

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의 소금생산계획을 기어이 6월 안으로 끝낸 높은 목표선에 증진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렸다.

제염소소금생산위원회에서는 양양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의에 맞게 최선적지시업을 참신하게 진행했다. 방출선전차와 기동선전차들을 기동선전차들은 수에 전두목표에 이르러야 하고, 추보관들이 제시되고 붙은 기동선전차들이 기동선전차로 교체되었다.

지배인 김홍준은 올해 전두목표를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열의, 주력, 일대적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과업을 위한

작업과 지휘를 하고 있었다.

동여이전대의 불리조건에 맞게 일군들은 소금생산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었다.

일군들은 소금밭을 골라피워 잘 꾸며놓고 원한 부러기까지 내려도 다 퍼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소금밭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작업반의 많고나기 제염공을 함께 일하면서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지치지 않고 이끌어갔다.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방법을 본받았기 조직하여 모든 전두목표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으로 부름부담을 지었다.

결과 제염 3직장 제 1, 2 직장, 제염 7직장 제 3직장에

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제1번저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령현영웅소대의 투쟁정신에 고무되어 서로 돕고 이끌어 집단적열의를 창조하기 위한 작업반별, 직장별사회주의경쟁열풍이 불어치는 중에 제염 3직장 제 3직장, 제염 4직장 제 1직장을 비롯한 10개의 작업반이 현이던 연간 소금생산계획을 수행하는 현실을 창조하였다.

제염 7직장과 제염 3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6월 5일까지 제1번저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들의 위훈이 다른 직장들에서도 단기간에 완수하기 위한 열의가 벌어져 마침내 6월 17일에는 제염소적으로 연간 소금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과에 조금도 만족을 모르고 더 큰 승리를 얻어오기 위하여 소금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어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사랑스러운 주제란들이 현이여 솟아올랐다.

우리의 주제란들이 대지를 박자처럼 눈부신 비명을 울리며 주체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그 이름만 불려도 그 승리의 환희가 넘치게 하는 《북극성》, 《화성》...

위대한 사면들의 여운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가고있다. 내 조국의 수천년민매가 확고히 담보되게 된 오늘날의 사면과 기적들을 알아볼 때마다 환희와 격정에 앞서 위대한 수호자의 헌신의 로정을 먼저 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첨단수준에 올라선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앞에서 적들은 공포에 떨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 전방외력인 보초를 쌓으며 살며 대한적익이 똬실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에 열쳐나서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제의 침략행동을 짓무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넘어진 국방력강화의 그 길은 천리천가, 만리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많고많은 낮과 밤을 헌신의 걸음으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이기를 하시었나.

군력강화의 피를 다방적으로, 번갈아 피 흘리며 승리의 편지를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자취를 우리는 삼가 더듬어 본다.

거목에는 그것을 받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의 기적과 신화들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고여있다.

한방중에 두 단계를 떠나고 새역길을 많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결기 어려다.

지난 2월의 어느날 댕둥이 러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가슴 똥구름처럼 울려 진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헌신해오시고, 신심을 안고 방사전지로 진출하라고 강령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수호자의 그 음성.

그음이 바로 새로 개발한 지상대 지상중장거리전력탄도인 《북극성-2》형이 또 하나의 위력한 주체무기로 떠오른 날이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다는 몰랐다. 국방부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성공여로의 길을 한치한치 헤쳐오신 우리의 장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극성-2》형시험발사준비사업을 진행하는 탄도탄종조립전투현장에 계시었다는것을.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아슬아슬한 현장, 절사의 각오가 없으면 누구나 섰을 나설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오래 시간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군사비로 동계급이 우리 조국의 혼돈을 수호할 각오를 안고 기어오른 전진적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만민을 버리고 전진적 공화국건설사업은 결사적으로 두들겨잡아야 했다.

원수님의 목적으로 전진적 공화국을 지어내려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제의 침략행동을 짓무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넘어진 국방력강화의 그 길은 천리천가, 만리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많고많은 낮과 밤을 헌신의 걸음으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이기를 하시었나.

군력강화의 피를 다방적으로, 번갈아 피 흘리며 승리의 편지를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자취를 우리는 삼가 더듬어 본다.

거목에는 그것을 받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의 기적과 신화들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고여있다.

한방중에 두 단계를 떠나고 새역길을 많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결기 어려다.

지난 2월의 어느날 댕둥이 러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가슴 똥구름처럼 울려 진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헌신해오시고, 신심을 안고 방사전지로 진출하라고 강령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수호자의 그 음성.

그러나 인민들은 다는 몰랐다. 국방부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성공여로의 길을 한치한치 헤쳐오신 우리의 장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극성-2》형시험발사준비사업을 진행하는 탄도탄종조립전투현장에 계시었다는것을.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아슬아슬한 현장, 절사의 각오가 없으면 누구나 섰을 나설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오래 시간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군사비로 동계급이 우리 조국의 혼돈을 수호할 각오를 안고 기어오른 전진적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만민을 버리고 전진적 공화국건설사업은 결사적으로 두들겨잡아야 했다.

원수님의 목적으로 전진적 공화국을 지어내려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제의 침략행동을 짓무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넘어진 국방력강화의 그 길은 천리천가, 만리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많고많은 낮과 밤을 헌신의 걸음으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이기를 하시었나.

군력강화의 피를 다방적으로, 번갈아 피 흘리며 승리의 편지를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자취를 우리는 삼가 더듬어 본다.

거목에는 그것을 받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의 기적과 신화들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고여있다.

한방중에 두 단계를 떠나고 새역길을 많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결기 어려다.

지난 2월의 어느날 댕둥이 러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가슴 똥구름처럼 울려 진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헌신해오시고, 신심을 안고 방사전지로 진출하라고 강령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수호자의 그 음성.

그러나 인민들은 다는 몰랐다. 국방부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성공여로의 길을 한치한치 헤쳐오신 우리의 장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극성-2》형시험발사준비사업을 진행하는 탄도탄종조립전투현장에 계시었다는것을.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아슬아슬한 현장, 절사의 각오가 없으면 누구나 섰을 나설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오래 시간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군사비로 동계급이 우리 조국의 혼돈을 수호할 각오를 안고 기어오른 전진적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만민을 버리고 전진적 공화국건설사업은 결사적으로 두들겨잡아야 했다.

원수님의 목적으로 전진적 공화국을 지어내려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제의 침략행동을 짓무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넘어진 국방력강화의 그 길은 천리천가, 만리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많고많은 낮과 밤을 헌신의 걸음으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이기를 하시었나.

군력강화의 피를 다방적으로, 번갈아 피 흘리며 승리의 편지를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자취를 우리는 삼가 더듬어 본다.

거목에는 그것을 받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의 기적과 신화들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고여있다.

한방중에 두 단계를 떠나고 새역길을 많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결기 어려다.

지난 2월의 어느날 댕둥이 러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가슴 똥구름처럼 울려 진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헌신해오시고, 신심을 안고 방사전지로 진출하라고 강령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수호자의 그 음성.

그러나 인민들은 다는 몰랐다. 국방부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성공여로의 길을 한치한치 헤쳐오신 우리의 장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극성-2》형시험발사준비사업을 진행하는 탄도탄종조립전투현장에 계시었다는것을.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아슬아슬한 현장, 절사의 각오가 없으면 누구나 섰을 나설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오래 시간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군사비로 동계급이 우리 조국의 혼돈을 수호할 각오를 안고 기어오른 전진적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만민을 버리고 전진적 공화국건설사업은 결사적으로 두들겨잡아야 했다.

원수님의 목적으로 전진적 공화국을 지어내려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제의 침략행동을 짓무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넘어진 국방력강화의 그 길은 천리천가, 만리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많고많은 낮과 밤을 헌신의 걸음으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이기를 하시었나.

군력강화의 피를 다방적으로, 번갈아 피 흘리며 승리의 편지를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자취를 우리는 삼가 더듬어 본다.

거목에는 그것을 받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의 기적과 신화들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고여있다.

한방중에 두 단계를 떠나고 새역길을 많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결기 어려다.

지난 2월의 어느날 댕둥이 러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가슴 똥구름처럼 울려 진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헌신해오시고, 신심을 안고 방사전지로 진출하라고 강령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수호자의 그 음성.

그러나 인민들은 다는 몰랐다. 국방부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성공여로의 길을 한치한치 헤쳐오신 우리의 장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극성-2》형시험발사준비사업을 진행하는 탄도탄종조립전투현장에 계시었다는것을.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아슬아슬한 현장, 절사의 각오가 없으면 누구나 섰을 나설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오래 시간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군사비로 동계급이 우리 조국의 혼돈을 수호할 각오를 안고 기어오른 전진적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만민을 버리고 전진적 공화국건설사업은 결사적으로 두들겨잡아야 했다.

원수님의 목적으로 전진적 공화국을 지어내려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제의 침략행동을 짓무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넘어진 국방력강화의 그 길은 천리천가, 만리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많고많은 낮과 밤을 헌신의 걸음으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이기를 하시었나.

군력강화의 피를 다방적으로, 번갈아 피 흘리며 승리의 편지를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자취를 우리는 삼가 더듬어 본다.

거목에는 그것을 받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의 기적과 신화들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고여있다.

한방중에 두 단계를 떠나고 새역길을 많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결기 어려다.

지난 2월의 어느날 댕둥이 러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우리 가슴 똥구름처럼 울려 진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헌신해오시고, 신심을 안고 방사전지로 진출하라고 강령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던 위대한 수호자의 그 음성.

그러나 인민들은 다는 몰랐다. 국방부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성공여로의 길을 한치한치 헤쳐오신 우리의 장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북극성-2》형시험발사준비사업을 진행하는 탄도탄종조립전투현장에 계시었다는것을.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아슬아슬한 현장, 절사의 각오가 없으면 누구나 섰을 나설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기술과 오래 시간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군사비로 동계급이 우리 조국의 혼돈을 수호할 각오를 안고 기어오른 전진적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만민을 버리고 전진적 공화국건설사업은 결사적으로 두들겨잡아야 했다.

원수님의 목적으로 전진적 공화국을 지어내려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억척같이 다져주시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제의 침략행동을 짓무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키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고넘어진 국방력강화의 그 길은 천리천가, 만리천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많고많은 낮과 밤을 헌신의 걸음으로 주체조선의 위상을 높이기를 하시었나.

군력강화의 피를 다방적으로, 번갈아 피 흘리며 승리의 편지를 불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명도의 자취를 우리는 삼가 더듬어 본다.

거목에는 그것을 받드는 뿌리가 있듯이 우리의 기적과 신화들의 밑바탕에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이 뜨겁게 고여있다.

한방중에 두 단계를 떠나고 새역길을 많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눈물결기 어려다.

지난 2월의 어느날 댕둥이 러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하시던 그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길에 발아올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있다. -평원혁명사적지에서서- 본사기자 특약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스탈린주의의상 운동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꺼라까스
스탈린주의의상 운동 의장
베네수엘라리베르타르 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각하
 각하
 나는 지난 1일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불공평한것으로 간주하면서 협정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하여 이 편지를 보냅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이며 현 세대를 넘어 후대들의 운명,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사생활적인 문제로써 국제공공재에 있어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스탈린주의의상국가수뇌자회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영웅의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후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통적이면서도 구별되는 책임》의 원칙에 부합되게 지구온난화에 특수책임을 있는 발전된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세계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있는데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처사는 온 세상을 뒤흔트려서라도 자기만 잘살겠다는 미기주의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로 꼽힙니다.
 세계2대에너지생산국중의 하나로서 지구온난화방지에 누구보다 책임있는 미국이 국제적인 합의나 의무는 안중에도 없이 독선적으로 저지하려는 미기적인 행태에 대해 지금 세계각지에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떨일 터져나오고있습니다.
 스탈린주의의상운동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유를 대변하는 권위있는 령방으로서 마땅히 발전도상나라들을 희생시켜 제 리유를 채우려는 미국의 오만하고 파멸적인 처사를 단호히 규탄적조하는 단합된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스탈린주의의상운동적인 협정에 전적으로 부합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스탈린주의의상운동의 원칙과 목적을 고수하고 운동의 역활을 높여나가는데서 귀국을 비롯한 운동성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것을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바입니다.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6(2017)년 6월 15일

함경남도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
 함경남도혁명사적관이 개관되었다.
 도혁명사적관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진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도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도혁명사적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도인의 일꾼들과 사적관운영원들,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 함경남도당위원회의 위원장이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명도

문제해결의 열쇠도 찾아주시며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 에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남포시의 한 책임일꾼을 부르셨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게지는 문제를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종이 하나하나 적으셨다.
 일꾼이 전시에 필요한 기구, 혼합기 등을 보고드릴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에게 남포시에 큰 공장들도 많이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기구나 혼합기같은것은 자체로 만들수 있지 않는가고 물으셨다.
 사실 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차례나 관련부서 일꾼들과 토의를 해보았으나 어떤 아무런 방해도 찾지 못하였다.
 이런 실례를 표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들에 나가

최룡해 동지 강원도의 여러 단위 현지료해
 [평양 6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문헌발표공장, 원산철도차량제작사업소, 강원도체육기구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신념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열쳐나선 이룩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문헌발표공장, 원산철도차량제작사업소, 강원도체육기구공장의 여러 생산공정

합경남도혁명사적관 개관식 진행
 함경남도혁명사적관이 개관되었다.
 도혁명사적관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진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도인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도혁명사적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도인의 일꾼들과 사적관운영원들,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 함경남도당위원회의 위원장이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명도

문제해결의 열쇠도 찾아주시며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 에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남포시의 한 책임일꾼을 부르셨다.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게지는 문제를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종이 하나하나 적으셨다.
 일꾼이 전시에 필요한 기구, 혼합기 등을 보고드릴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에게 남포시에 큰 공장들도 많이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기구나 혼합기같은것은 자체로 만들수 있지 않는가고 물으셨다.
 사실 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차례나 관련부서 일꾼들과 토의를 해보았으나 어떤 아무런 방해도 찾지 못하였다.
 이런 실례를 표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들에 나가

최룡해 동지 2.8비날론합기공소를 현지료해
 최룡해 동지 2.8비날론합기공소를 현지료해하였다.
 최룡해 동지 2.8비날론합기공소를 현지료해하였다.

불타는 충정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인 당선전일군

서두수발전소 초급당부위원장
 장이었던 전진철동무가 발전소
 에서 일한 기간은 몇년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는 우리 땅이 기억
 하고 사람들도 뜨겁게 추억
 하는 당선전일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
 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결모양은 소박하고 수수
 한데 심장의 고풍은 언제나 당
 의 뜻으로 높되고 온몸이 혁

서두수발전소 초급당부위원장이었던

명열, 무명열로 불타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배려하는 선
 전일군의 모습입니다.》

은 사회의 집합성-집정일주의
 화위일주의 사상적기초로서
 의 영예와 책임감을 안고 자기
 의 온갖을 광고 바친 그의 삶
 의 자취를 후손들이 후배의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숨쉬
 는 당시당일군은 어떤 사람이
 가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전진철동무

그의 손이 가닿지 않은 것이 없
 었다.

인연과 전진철동무의 가정
 새 이들과 당요가 생겼었다.
 이연세비 남면서 전진철을 돌
 아보고 집에 불어갔다가는
 밤 다시 나가 정중성보장에서
 미용한 집이 없는가를 확인하
 고도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
 고 하였다.

《어보, 발전소에 제대군인지
 너가 새로 배치되어왔는데 그
 게 부모가 없더구나. 그 처자
 인차 시집을 가는데 이 이불
 과 담요를 그에게 주는 것이 어
 뻔했소.》

《당선전일군으로 하시오.》
 《당선의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최순영동무였다.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전진철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혁명사적요양실과 연혁소개
 실건설이 벌어지던 어느날 밤이
 었다.

값높은

발전소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전진철동무는 소박하면서도
 불이 없었습니다. 늘 수수한 옷
 차림을 하고 로복차림과 허복
 없이 어울렸기에 사람들은 누
 구나 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수수한 옷차림에 능
 모를 특 놀려대고 다녔는데 그
 모 밭소는 너넨들은 우리 선
 전부위원장(아버지)이라고 불
 러다. 40대인 그에게 《아버지》

부름

는 호칭을 부리기에는 아직은
 일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노동자들과 어울림이 어울림이
 남보다 높은 마음속으로 누구
 다 잘 헤아려주는 전진철동무
 게 붙인 정다운 호칭, 값높은 부
 림이었다.

전진철동무는 언제나
 자기의 리의보다 집단의 리
 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전진철동무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조국

의 영도업적을 충고수하고 경
 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애누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강계교려약공장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
 민총동력전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신 강계교려약공장의 일군들과
 과 기술사, 로복차림이 선진과
 학기술성과를 의학생애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
 을 줄기차게 벌여 성과를 거
 두었다.

이와 함께 로화방지, 혈관확
 장, 담뇨에 좋은 약물을 재
 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
 히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올수록, 따라배우기
 중, 강립교려약공장의 불입속
 호응높은 여가까지 교려약
 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영웅적인

12월 혁명전에서는 교려
 약제의 일, 거기에서 유일성
 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한
 성이 공평회를 실현한데 이
 성이 공평회생성인데 그
 지고 있다. 불약적면에서는
 명각적과학자를 갖추어
 고 원로 투입, 추출, 기르기,
 농축 등 역속산공정의 자동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12월 혁명전에서는 교려
 약제의 일, 거기에서 유일성
 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한
 성이 공평회를 실현한데 이
 성이 공평회생성인데 그
 지고 있다. 불약적면에서는
 명각적과학자를 갖추어
 고 원로 투입, 추출, 기르기,
 농축 등 역속산공정의 자동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강계교려약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
 영명의 단이이다.

영웅적인

고상한 노년기풍을 확립하여 사회주의미래를 건설할 담당자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우리 생활

사람마다 말하기를 우리 사회는 미풍으로 짙 차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랑과 정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는 날로 더 활짝 꽃피어가고있는 미풍, 그것은 무엇을 뿌리고 하고있는가.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심과 의리는 인간과 고유한 미덕이며 사람들을 자각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추동하는 정신적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나라에 왔던 외국인의 한 인사가 자기의 방문록에 이런 글을 남긴적이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을 위해서 피를 버리고 꽃다운 청춘시절을 바치고 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런 인간, 참으로 이상하다. 과연 이 나라에 남이라는 말이 존재하는가. 내가 사는 사회에서는 꿈도 꾸지 않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평범한 생활로 되고있으니 조선이야말로 진정한 인본도덕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이르는 고상한 기풍이 풍기처럼 차오르는 내 조국의 현실을 두고 도덕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나고 사회생활속에서 발전하여 온 도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의 모습을 규정하는 기본정조의 하나로 되어있다.

도덕이 인간과 사회발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제인성리에 어느 한 단위에 있는 서성구역에 살고있는 영애애 군인 제헌국동무를 위해 전진용을 다 바치고있는 한수영이라는 녀성도동자가 있다. 이제는 커리어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되였지만 영애애 군인을 위하여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면 그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한다.

《매일 저녁 하루일을 총화하면서 영애애 군인의 삶에 저의 생활을 비추어봅니다. 조국을 지켜 키우던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친 것처럼 나는 오늘 하루를 멋있게 보냈는가. 영애애 군인이 전진용으로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그에 비추어 보면 저는 아직 멀고도 멀었습니니다.》

6년세월 누가 알아주지않던 한 영애애 군인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신 그는 그 소행도 기록하지만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진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느 한 기관의 한 당세포에서는 수십년세월 대성헌명령사수를 찾아가 혁명선열들의 정신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혈투도 남기지 못하고 조국해방의 길에 정순을 바친 투사들의 이름들이 되어주고 그들의 넋원을 헌신로 꽃피우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고결한 정신세계, 그것은 혁명선배에 대한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

이 땅에 넘치는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는 실제위인들께서 꽃피우신 아름다운도 숭고한 우리 생활의 꽃피고있다.

주제 58(1967)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흥영애 군인유령유물장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의욕을 한 지대인의 한쪽팔을 옆에 끼시고 친히 부추려 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오래도록 공생의 어머니를 불러주시었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영애애 군인들은 멋이 있고 그들의 로동환경과 생활조건은 어떤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며 영애애 군인과 그 안배들과 함께 영평의 기념사건도 찍어주시었다.

이후로 어머니유령유물장소를 다녔던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영애애 군인들이 피쳐올리는 만대의 환호에 담배하시며 공장 정문을 나서 시멘트 언덕이 수평면에서 문득 길을 음뻑하고 사자를 쫓던 자피로 되돌아서시었다. 그곳에서 그는 무더기같은 한 영애애 군인 이방금 사건의 책을 자리에서 두손을 높이 쳐올리고 뜨거운 눈물로 두눈을 적시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있었다.

어머니유령유물장소는 그에게 로다가가서 그의 두손을 감싸시신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뜨거운 위로와

교부의 말씀을 하시었다. 그리고는 감격에 겨워 눈물도 맺을만큼 못하는 영애애 군인들에게 다시한번 작별인사를 보내시고 다시 지방당일꾼들에게 그들을 당조직에서 잘 돌봐주라고 거듭 당부하시던 다음 완전히 차에 오르시었다.

크지 않은 봉상에 걸터졌던 그날의 화룡이아마도 이 땅에 흐르는 혁명적의리의 숭고한 기풍이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전심으로 지니고 계시는 실제위인들의 인민적 공포를 살피고 투쟁의 귀감으로 삼고 생활에 구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이다.

수령에 대한 총신심을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정화로 간직하고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사수하고 전진용을 행복으로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 그처럼 뜨거운 우리 사회,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은 어떤가.

이런 미국대통령 베건은 이런 쾰벤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도덕성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는것이다. 그 목표실현을 위하여는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며 사람들을 죽이는것도 서슴치 않아 한다.》

이런 날강도적인 도덕관이 사회를 지배하고있으니 미국이 떠드는 도덕의 세계, 본말의 세

계한 과연 어떤것인가를 구태여 혼합 여지가 있었는가.

몇분의 팔자를 위해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찌러죽이는것도 서슴치 않고 교정의 선생이 학생을 구하여 숨지게 하고도 《인간도덕》을 부르짖는 미국 사회, 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경찰이 백주에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죽이고도 법집행은 고사하고 도덕적책임도 지지 않아 세인을 경악케 한 북부무도한 사회가 바로 미국인것이다.

서로 돕고 이끌어 사랑하고 위해주시는것이 평범한 생활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은 인본도덕에 기초한 때 가장 뜨겁고 진실하며 공정한 사상경쟁으로 펼쳐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참다운 인본도덕에 기초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 그렇다. 어머니조국과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고상한 인본도덕, 참다운 도덕이라는 도양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정장 누구나 친필하고 제정바드며 서로 위해주고 아끼려는 마음, 고상한 사회주의 도덕기풍이 활짝 꽃피어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한다.

본사기자 오은별

투사의 동상앞에 놓인 꽃다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적성을 갖춘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사리원시의 어느 한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십시오.》 ...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축하의 인사말이었다. 김순철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입가친척들과 동무들인듯 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이 드러어나고 있었다.

다소곳이 머리를 숙고 앉아있는 신부의 뒤에 서서 세바퀴차를 밀고가는 신랑을 보며 사람들은 한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는 이 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신부인 류유영애군인친척과 일생을 함께 할 정념을 한 청년이 제대군인이라는것을 알게 되

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며칠전 영애애 군인과 가정을 이룬 친척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의 세 세대들에서 혁명동지의 이름을 함께 나눌수 있는 미풍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있는것인가.

우리는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으로 접음을 옮겼다. 자기들을 키우던 혁명선배로 존경하던 친척의 정으로 뭉쳐야 할바라왔고있는 그릇 대학생들을 일의 소거해달라는 사리원시시의 전경로명령과 류유영애군인들의 거두되는 의의를 받고 길을 떠난 우리들이었다.

우리의 눈가에 활짝핀 투사 강건동지의 동상주변관리를 하고있는 청년대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르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조국의 희망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춘을 바친 투사들의 삶이 있어 우리의 행복한 오늘이 있는것이 아닌가.

그곳에서 우리의 만난 판리원은 투사동지의 동상주변을 관리하고있는 대학생들을 가까이서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라고, 투사동지의 생일날은 물론 어느날에도 이곳을 자주 찾아온다고 이

야기하였다.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에서 우리는 대학청년동맹일군으로부터 이곳 청년대학생들이 이룩한 성과를 들을수 있었다.

지난해 총점의 70일전후와 200일전후의 나날 6개 학급이 최우등생학급으로 지파하였던 지난 4월 대학생과학탐구수상상자의 영예를 지닌 립상의학부의 리희희동무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의 위를 이어 많은 대학생들이 심적의 불꽃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이야기, 온 나라를 북부미해륙구건투로 부르는 당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10월 고려의학부 졸업반학살이 북부지역으로 진출한 아름다움 이야기...

청년동맹일군의 이야기에 우리는 공감기 있다.

투사들의 넋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보위투사로써 청춘을 바친 혁명선배들의 모습에 자신감을 비추어보며 청신도덕적으로 가꾸어가는 청년대학생들이 아닌가.

그곳에서 우리의 만난 판리원은 투사동지의 동상주변을 관리하고있는 대학생들을 가까이서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라고, 투사동지의 생일날은 물론 어느날에도 이곳을 자주 찾아온다고 이

본사기자

사회의 밝은 모습, 청춘의 향기

재담 《풍모》의 연속편창작과 공연활동을 들여다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속에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어느날 김형직사범대학 교원이며 문화전반장인 강은환동무는 대학학생들속에서 도덕기강을 살피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달받게 되

었다.

강은환동무의 가슴속에는 청년대학생들의 도덕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다듬어내 자신이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끓어 솟아올랐다.

그는 단숨에 창작적흥분으로만 작품을 대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앞장에서 펼쳐야 할 전사의 자세와 교양자적정신에서 청년대학생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 재담 《풍모》가 태어났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생들의 미숙한 창작활동을 여러차례 보아주시며 그드록 기뻐하시길 상상이나 했으랴.

주제 98(2009)년 3월 평양시내 대학학생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풍소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출연한 재담 《풍모》가 아주 잘되었다고, 작품도 잘했고 출연자들이 연기도 잘한

다는 분이 넘치는 지하시의 교시를 주시었다.

그 이듬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에서 재담 《풍모》의 연속편창작으로 창작한 재담 《우리의 도덕》, 《우리의 향기》는 가는 곳마다 한층층의 대접찬을 받았

었다.

언어예술, 진화예술, 인사예술, 웃사람과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동무들을 사랑하며 공도덕을 잘 지키며 대한 내용의 작품들로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던 나날 누구나 온 사회에 도덕기강을 세우는 데서 앞장서 실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사이 재담 《풍모》의 주

인공들도 어려운 바퀴였다. 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대학생들이 담임교원과 함께 찾곤 하는 일이었나. 와우도구역의 사리원시시립대학에서 영애애 군인리정명동무의 집이다.

그들이 매일 영애애 군인의 집을 찾아와 뜨거운 열속의 정을 나누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

지난해 어느 명일날 담임교사 그들은 한 하루 명일들을 즐겁게 보내었다.

이렇게 맺어진 영애애 군인과의 정은 더욱 뜨거워만지고있다. 학과과 조직생활은 물론 좋은일기에서도 남다른 보듬을 보이고있는 이 학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김은환동무의 가슴속에는 교단에 선 동지가 지니고있는 정이

정 열 열

먼저 찾는 집

와우도구역 남흥고급중학교 초급반 2학년 7반 학생들이 담임교원과 함께 찾곤 하는 집이 있다. 와우도구역의 사리원시시립대학에서 영애애 군인리정명동무의 집이다.

그들이 매일 영애애 군인의 집을 찾아와 뜨거운 열속의 정을 나누게 된다는 사연이 있다.

지난해 어느 명일날 담임교사 그들은 한 하루 명일들을 즐겁게 보내었다.

이렇게 맺어진 영애애 군인과의 정은 더욱 뜨거워만지고있다. 학과과 조직생활은 물론 좋은일기에서도 남다른 보듬을 보이고있는 이 학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김은환동무의 가슴속에는 교단에 선 동지가 지니고있는 정이

정 열 열

돌보이는 모습들

먼저 아는 방간들로 키워야 할 자신의 본분이 되새겨졌다.

《우리 함께 이 꽃다발을 안고 가볼까요.》

담임교원의 위를 따라 걷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영애애 군인리정명동무의 집앞에 멈추어 섰다. 영애애 군인에게 건넨 꽃다발도 인제주교의 부부들이 주지없이 몸을 내던 그의 병사시절의 위문함도 들은머리에서는 한 하루 명일들을 즐겁게 보내었다.

이렇게 맺어진 영애애 군인과의 정은 더욱 뜨거워만지고있다. 학과과 조직생활은 물론 좋은일기에서도 남다른 보듬을 보이고있는 이 학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김은환동무의 가슴속에는 교단에 선 동지가 지니고있는 정이

정 열 열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 청년대학생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적성을 갖춘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사리원시의 어느 한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십시오.》 ...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축하의 인사말이었다. 김순철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입가친척들과 동무들인듯 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이 드러어나고 있었다.

다소곳이 머리를 숙고 앉아있는 신부의 뒤에 서서 세바퀴차를 밀고가는 신랑을 보며 사람들은 한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는 이 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신부인 류유영애군인친척과 일생을 함께 할 정념을 한 청년이 제대군인이라는것을 알게 되

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며칠전 영애애 군인과 가정을 이룬 친척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의 세 세대들에서 혁명동지의 이름을 함께 나눌수 있는 미풍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있는것인가.

우리는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으로 접음을 옮겼다. 자기들을 키우던 혁명선배로 존경하던 친척의 정으로 뭉쳐야 할바라왔고있는 그릇 대학생들을 일의 소거해달라는 사리원시시의 전경로명령과 류유영애군인들의 거두되는 의의를 받고 길을 떠난 우리들이었다.

우리의 눈가에 활짝핀 투사 강건동지의 동상주변관리를 하고있는 청년대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르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조국의 희망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춘을 바친 투사들의 삶이 있어 우리의 행복한 오늘이 있는것이 아닌가.

그곳에서 우리의 만난 판리원은 투사동지의 동상주변을 관리하고있는 대학생들을 가까이서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라고, 투사동지의 생일날은 물론 어느날에도 이곳을 자주 찾아온다고 이

야기하였다.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에서 우리는 대학청년동맹일군으로부터 이곳 청년대학생들이 이룩한 성과를 들을수 있었다.

지난해 총점의 70일전후와 200일전후의 나날 6개 학급이 최우등생학급으로 지파하였던 지난 4월 대학생과학탐구수상상자의 영예를 지닌 립상의학부의 리희희동무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의 위를 이어 많은 대학생들이 심적의 불꽃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이야기, 온 나라를 북부미해륙구건투로 부르는 당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10월 고려의학부 졸업반학살이 북부지역으로 진출한 아름다움 이야기...

청년동맹일군의 이야기에 우리는 공감기 있다.

투사들의 넋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보위투사로써 청춘을 바친 혁명선배들의 모습에 자신감을 비추어보며 청신도덕적으로 가꾸어가는 청년대학생들이 아닌가.

그곳에서 우리의 만난 판리원은 투사동지의 동상주변을 관리하고있는 대학생들을 가까이서 황북종합대학 강건의 학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이라고, 투사동지의 생일날은 물론 어느날에도 이곳을 자주 찾아온다고 이

본사기자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재침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거점인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서 (3)

오늘도 재침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나라를 침략할 기복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일본인들들에 대한 치맛은 재계심안고 우리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부추김에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7호선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부지 못한 《태동야망영권》의 영풍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로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는 자료들과 반공회국적대성령을 날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전시실은 강사의 직분은 미군부장을 하고 미군사교관들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불꽃앞에서 반격을 감행할수 없다.

《이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일본은 미국의 적국인 비호투병에 새로운 침략투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강사의 직분을 한 목소리가 전시실을 울렸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침략의 여풍을 국풍으로 둘러싸면서 아시아침략에 정념이 있고 우리

나라와 중국, 이젠 소련을 침략하는 일에 유리한 군사전략적위치에 있는 일본을 괴롭히고있다. 하여 극동국제군사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최고령도자 이데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범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미제의 비호투병에 되살아난 일본인들은 재침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하는 역사적목표를 세웠다.

저들의 피비린 침략사를 외곡할 조화하면서 조선인대학생들과 일본군소노에병과를 비롯한 무대형인민혁명적가담회들에 대하여서도 인정하지 않고있는 일본인들 모두의 괴뢰정부를 보여주는 전시실들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속에서는 격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본독 우리의 눈앞에 흉물스런 일본 《자위대》의 마크라는 것이 비쳐들었다. 과거 일본의 해외침략의 상징이었던 《히노미토》(일정기를 바탕으로 세계 지도가 그려져있는 일본 《자위대》의 마크를 바라보는 참관자들의 두눈에 불이 켜졌다. 《히노미토》, 바로 그것을 총상에 매달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잔재미분의 파피와 학살, 전인한 학살을 감행한 일제가 아닌가.

제2차 세계대전후 도이쥘란드는 침략의 상징이었던 기발을 버리고 자기 나라의 기발을

세로 제정하였지만 일본은 저주로운 《히노미토》를 그대로 《국기》로 제정하고 또다시 해외침략에 광분하고있다. 오늘 일본정부는 《황군》출신의 산술장들이 버젓이 《히노미토》를 내걸고 기를 행진하고 있다.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불격을 지어냈다.

참관자 모두가 분노로 치를 떨고있을 때 강사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이 사진자료는 일본의 독도강제일조선인대학생의 치미고미에서 오래도록 길을을 옮기지 못했다. 민족의 자랑이 지마지마서 일제와 학교간에 나섰다가 자기의 민족을 잊었다는 죄인 《제》로 폭풍을 당했음 이부모를 그날의 학생, 여제 그 녀학생 하나뿐 세를 다시었다.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들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마비되고있는 부수의 열광을 그려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웃을수 없는 리악을 저지르고 영원의 아름다움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군국주의 특사, 가장 악랄하고 파멸적인 침략자이며 원년속적인 일본인들을 대한 부수의 정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우리는 반일교양전시실들에 대한 참관을 마지않는다.

본사기자 신철

개천관광에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리 공화국의 위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

을 신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관광에서는 초급강원회의의 지도도에 계급교양실현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인부들을 투철한 계급교양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적악인 일시적후퇴기 개천광에 기여들어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만행자료를 통한 계급교양을 잘하여 인부들의 가슴마미에 미제의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부수경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반공투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서한중추를 과감히 밀어내기도 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진행된 계급교양 영조청년동맹대원들이 진행한 부수경의모임은 참가자들의 가슴마미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파멸까지 맞서서야 한다는 계급교양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관광에서는 날로 높아지는 우

리 공화국의 위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

을 신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관광에서는 초급강원회의의 지도도에 계급교양실현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인부들을 투철한 계급교양으로 무장시키고 있다.

특히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적악인 일시적후퇴기 개천광에 기여들어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만행자료를 통한 계급교양을 잘하여 인부들의 가슴마미에 미제의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부수경의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반공투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서한중추를 과감히 밀어내기도 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진행된 계급교양 영조청년동맹대원들이 진행한 부수경의모임은 참가자들의 가슴마미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을 파멸까지 맞서서야 한다는 계급교양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관광에서는 날로 높아지는 우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를 넘쳐있다. -개천시계급교양관에서-

